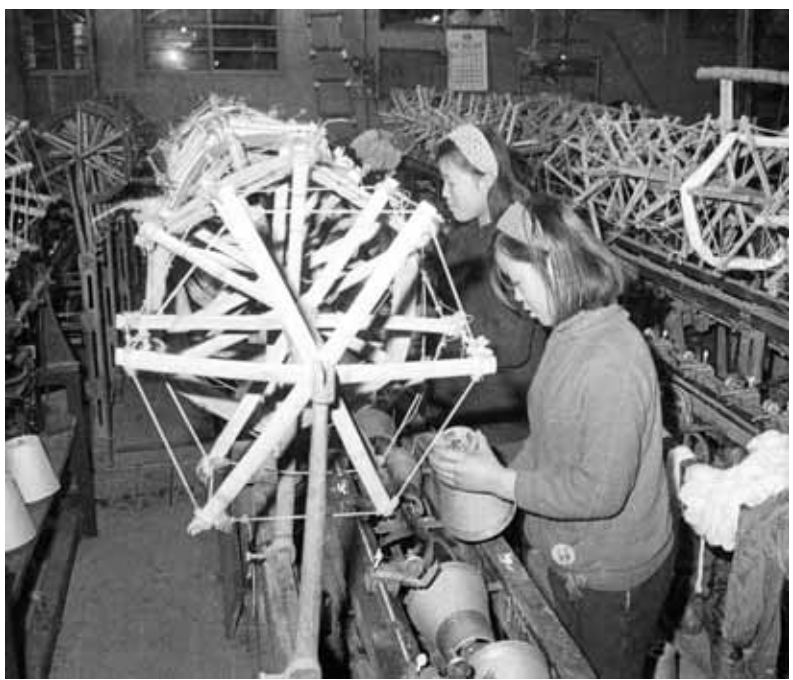


# 시민의 애환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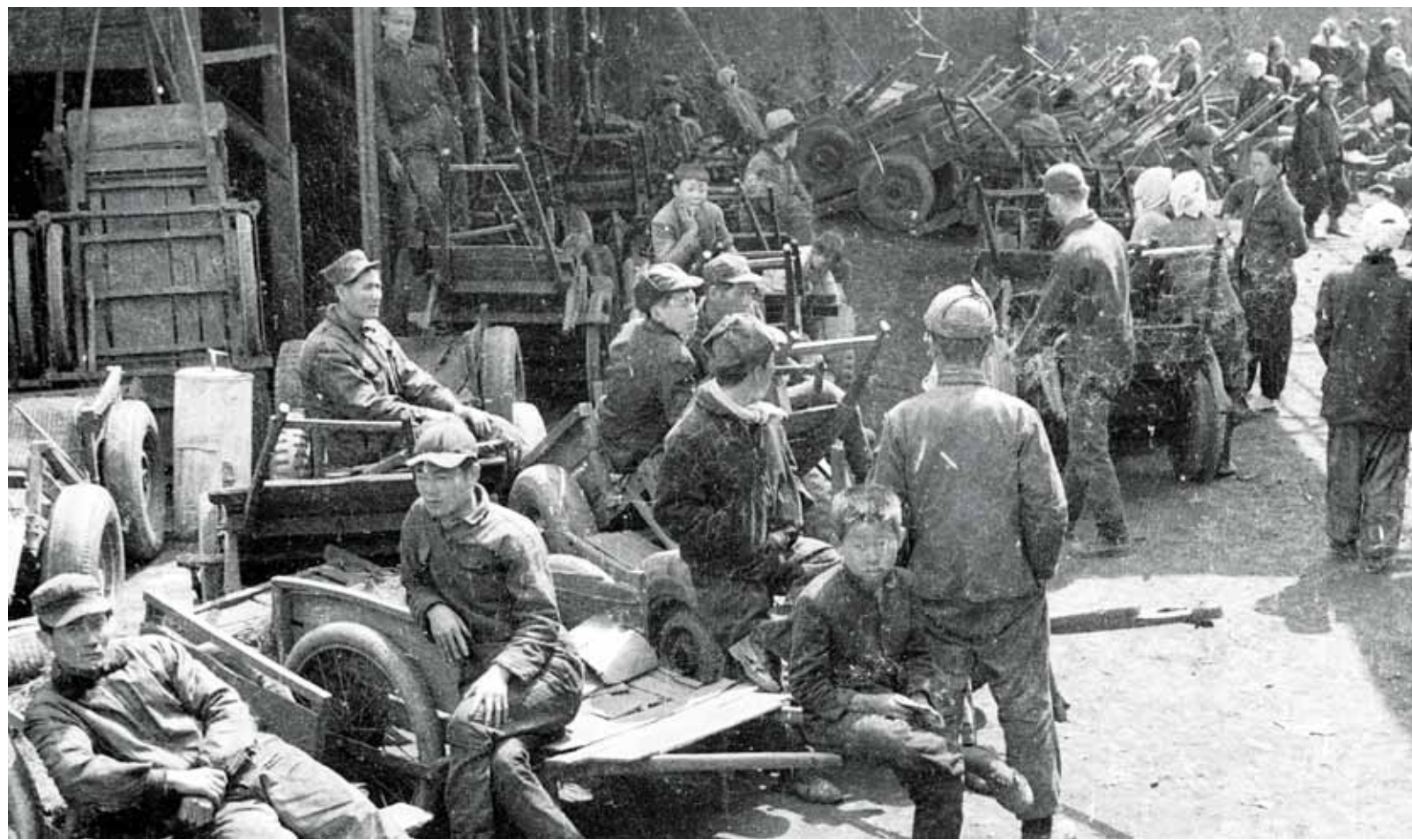


**전남방직공장 여공** 1961년 1월7일 전남방직공장 여공들이 방직기를 통해 만든 실을 실패에 감고 있다.



**광주천 투망질** 1976년 광주천에서 동네 아이들이 투망질을 하고 있다.

사진으로 보는 광주일보 63년



**한장이라도 더... 연탄공장 앞 장사진** 1960년대 가정 연료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연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1965년 연탄 품귀와 사재기 등으로 인해 '연탄 파동'이 일어났다. 1966년 3월30일 광주시 북동의 한 연탄공장 앞에서 소매상과 수레꾼들이 지친 표정으로 연탄 수령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. 당시 광주일보는 1면과 4면에 걸쳐 석탄 수급조절 실패해 '연탄 파동'을 초래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.



**문 안달해도 "오라이"** 시내버스가 광주시 교통수단의 전부이다시피했던 1980년 출근길. 3월26일 금남로에서 '만원 버스'의 문을 닫지도 못한 채 매달려 가는 여차장의 모습. 교통지옥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시내버스 여차장 제도는 1961년 8월 시작돼 1980년 중후반에 사라졌다.



**매맞는 어린이** 1969년 10월 광주 도심에서 무엇을 잘못 했는지 어머니에게 매를 맞는 어린이가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.



**어린이 교통 바캉스** 1969년 8월 19일 전라남도 경찰국이 마련한 어린이 교통 바캉스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씨름 경기를 하고 있다.



**기타치는 이효춘** 광주 출신인 탤런트 이효춘씨가 1970년 T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. 이효춘씨가 광주 한 음악감상실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.



**난로위 점심 도시락** 1976년 12월. 전남도청 민원실 직원들이 연탄 난로에 점심 양은 도시락을 올려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.